



\*사진 출처: 주한일본대사관 월간 홍보지 '일본의 새소식'

# STUDY in JAPAN

— 사진으로 돌아보는 일본 유학 —



# 일본 유학 가 보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꿈과 이상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유학은 외국에서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

일본 유학!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서로의 가치를 높여 줄 친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유학 가 보자!

꿈을 향해, 그리고 양국 간의 가교를 넘어 세계를 향하여, 일본 유학이 앞으로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16년 3월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STUDY in JAPAN

– 사진으로 돌아보는 일본 유학 –

## 목 차



테 마: 생생한 문화체험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과의 교류!

윤미령씨(2000년~2001년 규슈대학) ..... 1p~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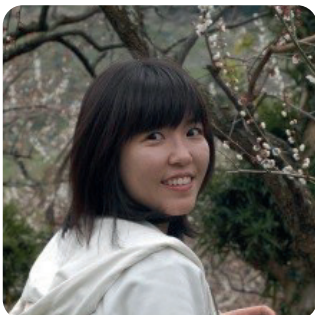
테 마: 도전 그리고 자기 발견의 기회!

임창운씨(2013년~2014년 게이오대학) ..... 5p~6p



테 마: 유학이라는 도전 그리고 젊음이라는 열정!

권문석씨(2008년~2013년 교토대학)  
이수현씨(2008년~2013년 도쿄대학) ..... 7p~10p



테 마: 즐거운 경험, 생생한 체험 보람된 생활!

안진옥씨(2009년~2010년 교토대학) ..... 11p~13p

\*국비유학 안내 ..... 14p~16p

# 즐거움 경험, 생생한 체험 보람된 생활!



작성자 프로필

성명: 윤미령  
유학기간: 2000년~2001년  
분야: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유학기관: 규슈대학  
현소속: 구리시 미사고등학교



## \* 학교 생활

- 규슈대학 교정. 벚꽃 흩날리는 4월.
- 미국인 유학생 Chad가 중심이 되어 운영했던 카페 '茶処 カルチャーカフェ'.

유학생 센터 앞에서 소박한 자태를 뽐내며, 오고 가는 학생들의 쉼터가 되었던 곳.

이 곳에서 처음으로 커피와 슈크림을 팔아보는 경험을 했다. 일본 학생과 유학생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했던 추억 많은 장소입니다.

## - 대학생 생활

회화, 문학, 작문 등 일본어 수업 및 일본문화 수업 필수, 역사과목 청강 등 선택.



## \* 유학생 회관 생활

한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도착 첫 날부터 모임에 참석하는 등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이므로 외국어 학습에 욕심이 있다면 한국인 보다는 외국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스테이, 굿따기 체험, 문화교류, 회관 축제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사진은 기숙사에서 요리를 좋아하는 타카요가 만들어준 저녁만찬. 우린 가끔 엄마의 밥상이 그리울 때, 타카요에게 조릅니다. 집밥 먹고 싶다고..^^





\* 한국인 유학생 대표로 야구시합에 참가,  
일본 유명구단 야구선수와 악수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 후쿠오카 돐에서 열린 야구경기에서 유학생 대표로 꽃다발  
수여를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디서 빌렸는지 기억도 안나는  
옛스런 핑크색 한복을 입고 조신한 척...^^



주 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님 내외분과 만찬 시간.

\* 여행

- 유학생회관 패밀리들과 1박 2일 캠핑
- 청춘 18 열차 티켓을 끊고 열차여행 중 들렀던 '모지항'(門司港). 이국적이고 아기자기한 항구도시.
- 히로시마 베프 히로꼬, 타카요와 함께, 쿠라시키의 화과자점 앞에서.
- 당일치기 여행. 장소는 기억 안나는데, 누구와 함께 갔는지가 더 중요...



\* 인연

대학 주최하에 참여한 홈스테이에서 만난 호스트  
패밀리와 히로시마원폭돔 앞에서: 2000년 후쿠오카  
에서 만난 호스트패밀리와 계속 연락하고 지냅니다.  
2002년 JET프로그램 국제교류원으로 히로시마에서  
근무하던 시절, 나를 만나러 히로시마로 가족여행을 온  
호스트패밀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함께  
유학생활동을 한 동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 직장 생활**

일본문화체험수업: 일본 전통 의상에 관한 전반적인 강의수업 후 학생들이 직접 입어보는 체험을 합니다.



일본어 동아리 수업 1, 2: 히라가나를 외우기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문자 카드로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학습합니다.

**\* 유학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

귀국 후 JET Programme에 응시하여 2002년 4월 도일. 히로시마현청에서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4~2004. 3), 학생이 아닌 사회인 신분으로 일본과 한국 간의 교류사업에 가교역할을 하였습니다. (통번역, 문화교류 코디네이터, 관광 및 연수 가이드) 학교방문(학생과의 교류) 등 다양한 업무를 접해 봄으로써 나의 적성을 발견했습니다. 귀국(2004. 3) 후 중등 일본어교사(2006. 3)가 되어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일본어 및 일본문화 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첫 발령받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주선으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물이랄까.



1) JET Programme란, 어학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청년 유치사업이다. 지난 29년간 65개국에서 62,000명 이상의 외국청년이 참가하여 일본의 지방 공공단체, 학교등에서 지방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적교류 사업이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저는 학부 4학년 때 1년 간 일본어 일본문화연수생 생활을 하였고, 그 때에 국제교류원(JET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여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한일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국제교류원 생활을 통해 하나씩 실천할 수 있었고, 임무를 마치고 귀국 후에는 후배 양성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오랫동안 아주 간절히 꿈을 꾸며 하나씩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내 꿈에 가까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STUDY in JAPAN



# 도전 그리고 자기 발견의 기회!

작성자 프로필

성명: 임창운  
유학기간: 2013년~2014년  
분야: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유학기관: 게이오대학  
현소속: 삼성생명



## \* 농구동호회

사진의 농구동호회의 팀 이름은 LCW 입니다. 제가 떠난 뒤에도 임창운이라는 한국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싶다는 지은 팀 이름입니다. 기존의 팀의 이름을 바꾸어 즐만큼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었기에 너무 뜻깊은 동호회 활동이었습니다.



## \* 외국인 유학생 스피치 대회 (최우수상 수상)

본 사진은 게이오대학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 있던 사진입니다.

당시 '일본과 나'라는 주제로 스피치 대회에 참가했고 1등을 하여 메인 홈페이지에 게재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참가자들 중 유일하게 기립박수를 받았고, 이렇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타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 현재 속한 영업관리직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 프로복싱

저는 일본 유학 중 6개월 간의 수련 끝에 프로복싱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프로복싱을 계기로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도전 정신과 인내심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귀국 이후 어느 자리에서도 항상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로서의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직장에서의 연수 중에 있었던 프레젠테이션 대회에서 프로복싱 이야기로 1등을 하여, 그만큼 제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소재가 되었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일본 유학을 망설이는 이유가 혹시 자신의 미래가 일본이라는 틀에 한정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라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례들은 물론이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역시 일본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생면 부지의 사람들 앞에서 '나' 라는 사람으로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자신감을 배우고, 스포츠를 통한 도전 정신들을 깨달으며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학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발견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낳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 직장 생활 모습



# 유학이라는 도전 그리고 젊음이라는 열정!

작성자 프로필

성명: 권문석, 이수현  
유학기간: 2008년~2013년  
분야: 학부유학생  
유학기관: 교토대학, 도쿄대학  
현소속: S 자산운용



### \* 여러나라에서 온 유학생과의 만남

외국어대학에서 1년동안 이루어지는 어학연수는 학부 유학의 꽃과도 같은데, 여기서 사귄 여러 나라의 학생들과 평생 친구가 되어 세계로 발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유학시절에 한두 번쯤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여 견문도 쌓고 우정을 이어갑니다. 또 일본어 공부 측면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장하는데,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말고도, 파란 눈의 호주인이나 헝가리인이 일본인 뺨치는 어휘력을 가지고 일본어를 구사하는 걸 보면서 본인의 비루한 실력을 반성하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일본어가 대중화 되어 있지 않고 공부할 여건도 좋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참 으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일본어 괴물들은 매년 나타나며, 장미(薔薇)나, 기린(麒麟), 우울(憂鬱) 같은 한자도 막히지 않고 잘 씁니다 (필자는 아직도 못씀).

### \* 일상에 있는 전통

일본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살았던 작은 동네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닐 텐데, 길거리에는形形色색의 기모노를 입은 사람이 넘쳤습니다. 물론 장년층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불꽃 축제나 줄업식 등 행사가 있을 때 젊은층이 전통의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결혼식에서는 한복을 많이 봤지만 곁에 한복을 입고 전철을 타거나, 슈퍼에서 장을 보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기모노 사랑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으며,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기모노를 입는 것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전통의상을 일상화시켜 끊임없이 공급과 수요를 만들어내고, 패턴과 디자인을 현대화 시켜가는 등 일본인들의 노력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추천 여행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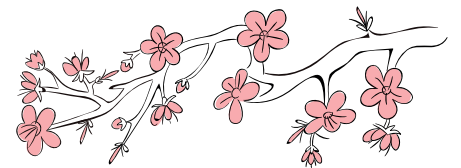
일본에 사는 내내 받았던 질문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은 “어디 여행가면 좋아?” 였습니다. 필자에게는 정해진 대답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정수를 느끼고 싶으면 도쿄를, 일본의 다양한 면과 문화를 느끼고 싶으면 교토와 나라(奈良)를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쿄디즈니랜드, 롯본기, 신주쿠 등 도시를 대변할 수 있는 랜드마크들이 가득한 도쿄도 좋지만, 고즈넉한 전통 가옥이 즐비한 골목길과 종종걸음의 마이코<sup>2)</sup>를 만날 수 있는 교토도 추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마이코란, 노래나 춤, 사이센 (전통악기)로 연석에서 흥을 더하실 일을 하는 여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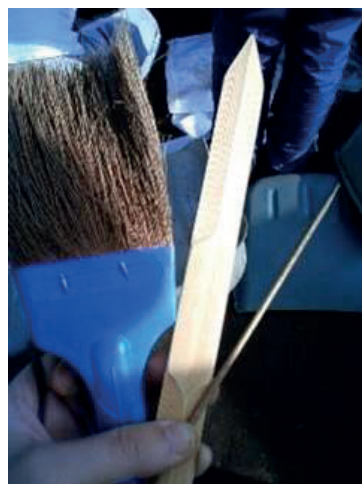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관서 쪽 관광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쇼핑을 즐길 도시도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어느 순간 오래 전의 시대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주택가로 돌아 들어갈 수 있는 교토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즐비한 절을 둘러보고 운이 나쁘면 길가던 사슴에게 걷어 차일 수도 있는 나라도 빼놓을 수 없는 추천 관광지 입니다.



✿ 고고학 발굴 수업

필자는 고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3학년 여름 홋카이도로 야외수업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실제 1000 년 전 집터를 표층부터 발굴해서 유물을 분리해내고 집터와 지붕모양의 조사를 완성하는 20일짜리 발굴수업의 이름은 발굴수업인데 하는 일은 막노동이었습니다. 처음에 삽으로 땅을 팔 때는 집터가 궁금해서 신이 나고, 꽃삽이나 브러시로 땅을 팔 때는 진짜 고고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맨 나중에 떡볶이 집에서 주는 대나무 꼬챙이로 흙을 긁어내는 수준이 되자 고고학자란 노동을 동반하는 직업이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또 노지라서 빛을 가려주는 것이 없어 매우 덥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땅을 파내는 것이 주 활동이다 보니 허리와 허벅지 근육이 매우 아팠었습니다. 매일 교실에서 이론만 듣다가 실제로 발굴현장에서 활동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 최고의 관광지

대학교 4 학년, 졸업논문을 쓰다가 지쳐서 훌쩍 떠난 오키나와. 이곳에 다녀온 뒤로는 항상 추천 관광지 1 위는 오키나와였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의 인프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 동남아의 기후와 아름다운 바다를 지닌 오키나와는 안전과 아름다움을 갖춘 최고의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가끔 달러를 받는 가게도 있고, 일본에서 영어를 그나마 잘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곳. 나하(那覇)를 떠나 이리모테섬(西表島) 같이 살짝 떨어진 섬으로 더 깊이 들어가 할 수 있는 다이빙도 즐겁습니다. 아픈 역사를 지닌 류큐(琉球)왕국의 유적지는 고전소설에 나오는 것 같은 고대국가의 느낌을 줍니다.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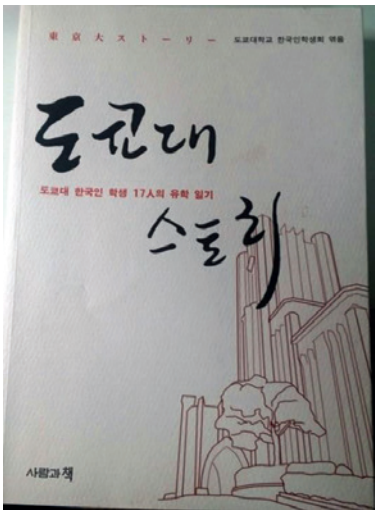
사진의 말은 필자와 마루베리라는 도쿄대 마술부(승마부)의 말입니다. 필자는 1-2학년 새벽 5시반부터 12시까지 이어지는 동아리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일본학생들의 열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그 열정으로 취업준비를 한다면 대부분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너끈히 들어갈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왔으면 좋아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본다는 학풍도 중요하지만, 성적에 연연하지 않아도 나중에 취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회적 구조도 한 몫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자들은 운동 동아리를 선택했지만, 철도연구부나 애니메이션 연구부도 학교 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동아리들이 많은 것이 큰 재미입니다.



\* 도쿄대스토리 한국인의 유학생회

도쿄대 한국인 유학생회의 권유로 썼던 책. 무려 공동저자가 17 명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고등학교 등지에서 유학 관련 서적으로 많이 사가서 판매부수가 적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 TOKYO

\* 학풍 차이

정말 저러냐고 묻는다면 정말 저렇다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 학교의 학풍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진이 아닐까 하는데, 모범생으로 대표되는 도쿄대와 자유로운 영혼의 고토대는 졸업식 뿐만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저런 느낌입니다.

커리큘럼이나 학생들의 생활이 그러한데, 예를 들어 기숙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도쿄대 기숙사는 소득수준과 학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1인 1실을 배정하며 철저히 관리하는 것에 비해, 고토대의 유명한 요시다 기숙사에서는 학생 자치회에서 4인실에 5명을 배정해 놓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실들과는 상관없이 기숙사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듯, 건물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 하려고 하기도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가 도쿄외국어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당시 선생님들은 '도쿄대가 아니라 당신은 고토대 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 생생한 문화체험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과의 교류!

작성자 프로필

성명: 안진옥

유학기간: 2009년~2010년

분야: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유학기관: 교토대학

현소속: KTA(코리아테크노에이전시)



✿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생 지원동기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면서 장래에 일본어 번역 관련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말의 뉘앙스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1년 간에 걸쳐 4 계절을 모두 현지에서 직접 느껴보고 문화를 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이후 “닛켄세” 로 표기)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교토대학에서의 닛켄세 생활

교토는 문화유산도 많을 뿐더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고, 교토대학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교토대학을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토대학에서는 닛켄세를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개설되어 있어, 일본어·일본문화·역사·문학 등의 전반적인 수업을 받고, 관심 있는 분야 중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완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었습니다.

논문 작성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지만, 논문을 작성해보는 경험은 일본어 문서를 작성하는 연습이 되기도 하고, 자료를 찾는 방법,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은 논문을 작성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로, 평소라면 해보지 못할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교토 3대 축제나, 교토와 교토 근교의 문화유산 견학, 수학여행,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역사적 배경 등의 수업을 받고 나서 견학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들이었습니다.



2009-2010 京都大学 日本語・日本文化研修留学生

**\* 세계 각국의 학생과의 교류**

일본에서 유학생활동을 한다고 하면 일본인들과의 교류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닛켄세의 경우 수업을 계속 함께 듣고 생활하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교류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일본에 대한 생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 여행**

교토는 관광지로도 유명한 만큼 둘러볼 곳이 많아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또는 주말이나 방학에 혼자서 혹은 닛켄세끼리 모여서 가보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교토는 특히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서 봄에는 벚꽃놀이, 여름에는 불꽃놀이, 가을에는 단풍 놀이, 겨울에는 설경을 보며 일본의 4 계절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교토 이외에도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청춘 18 티켓으로3) 나고야, 히메지, 이세 같은 근교를 여행 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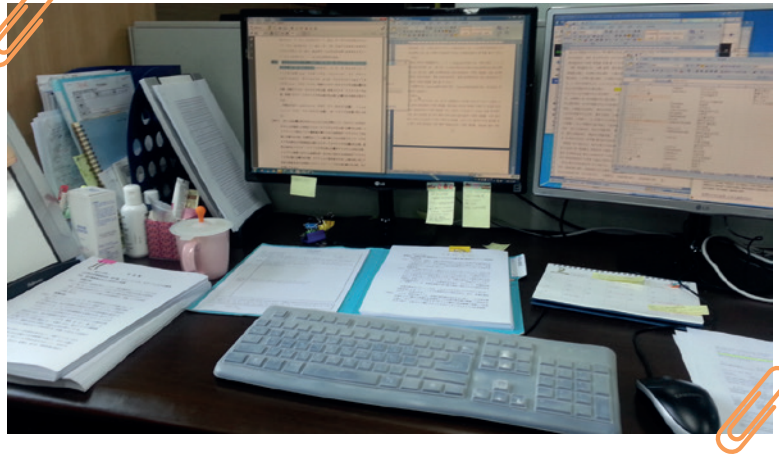
3) 청춘 18티켓이란? JR선의 보통·쾌속 열차의 보통차 자유석 및 BRT(버스 고속 운송 시스템) 및 JR 서일본 미야지마 페리에 자유롭게 탑승 가능한 티켓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기숙사 생활

닛켄세의 경우 기숙사에서 살 것인지, 혼자 방을 얻어서 생활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실 이외 방이 모두 1인실 이었는데, 당시 교토대학에 온 닛켄세들은 모두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녁에 한 사람의 방에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게 되었을 때는 모두 송별회를 같이 하며 한명 한명 기숙사에서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 직장 생활

귀국 후에는 재직 중이던 한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전부터 번역 관련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관련 직장을 찾던 중 작은 특허사무소에서 일본어 번역자를 모집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취직해서 특허명세서 번역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적재산 관련 회사의 일본어부에 재취직을 해서 특허명세서 번역을 주업무로 하는 번역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닛켄세로 유학했던 경험은 실제로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특허명세서 등의 기술 번역을 하고는 있지만, 논문을 작성해 봤던 경험이 일본어 서신이나 문서 작성에, 일본을 여행하면서 접했던 지명이나 일본의 여행 관련 정보들이 여행 관련 팸플릿 등을 번역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닛켄세 출신 친구들은 각자 나라로 돌아가 저처럼 취직한 친구도 있고, 일본에서 취직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계속 공부 중인 친구, 혹은 외교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면서 한국으로 친구들이 오기도 하고, 일본에 갔을 때 일정이 맞으면 서로 만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만나기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앞으로의 닛켄세분들에게

닛켄세 유학은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갔을 때 가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실력을 키우거나, 문화체험 등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학생생활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추억도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의 친구들도 얻을 수 있어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저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유학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청사진이 있으시다면, 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얻은 경험들은 귀국 후에 취직하고 일을 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개요

## 연구유학생

창설년도: 1954년(한국 1965년)

전문교육: 대학원에서 전문분야를 전공

자 격: 대학(학부)졸업 이상인 자 등

연령제한: 채용 시 만3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일본 대학에서 연구 가능한 분야(전통예능, 공장 등에 있어서 특정한 기술 등의 실무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또한, 대학에 있어서 전공한 분야, 또는 이에 관련된 분야로 한다.

기 간: 일본어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2년 이내(10월 일본 입국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또한, 대학원 정규과정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 지급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도입시기: 4월 또는 10월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 항공권 등

인 원: 41명(2016년도), 41명(2015년도)

## 학부유학생

창설년도: 1954년(한국 2004년)

전문교육: 일본의 대학에서 학부학위과정을 학습

자 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등(모집요강 참조)

연령제한: 채용 시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1)문과계: 문과계A: 법학, 정치학, 교육학, 사회학, 문학, 사학, 일본어학 등  
문과계B: 경제학, 경영학

(2)이과계: 이과계B: 보건학계(약학, 보건학, 간호학)

이과계C: 의학, 치학

기 간: 예비교육을 포함하여 5년(단, 직접입학은 4년, 이과계 의과/치과/수의학과와/6년제 약학과는 7년 간. 석사과정 진학 시 연장 신청 가능)

도입시기: 4월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인 원: 11명(2016년, 문과9명 이과2명), 17명(2015년, 문과 14명, 이과 3명)

## 전수학교유학생

---

창설년도: 1982년(한국1982년)

전문교육: 전수학교의 전문과정 학습

자 격: 고등학교 졸업 및 일본 입국시까지 확실히 졸업이 가능한 자 등

연령제한: 채용 시 만17세 이상, 22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토목, 건축,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기통신, 영양학, 호텔, 관광, 복장, 디자인 등

기 간: 일본어교육 1년을 포함하여 3년

도입시기: 4월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인 원: 6명(2016년도), 2명(2015년도)

## 일본어·일본문화연수생

---

창설년도: 1979년(한국1981년)

전문교육: 일본어·일본문화의 특별연수

자 격: 대학(학부)에 일본어·일본문화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일본 대학에 있어서  
일본어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자

연령제한: 채용 시 만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

모집대상: 일본어 관련 학과 2, 3, 4학년에 재학하는 자

기 간: 1년(연장 불가)

도입시기: 10월(일부는 9월)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인 원: 29명(2015년도), 31명(2014년도)

## 교원연수생

---

창설년도: 1980년(한국1981년)

전문교육: 교원양성학부에서 특별연수

자 격: 대학(학부)졸업, 자국의 초·중등교육기관의 현직 교원 등으로 5년 이상 현직 경험이  
있는 자(현직 대학교원은 대상 외)

연령제한: 채용 시 만35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교육에 관련하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대학·연수코스만

기 간: 일본어 교육 6개월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내(연장 불가)

도입시기: 10월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인 원: 17명(2015년도), 19명(2014년도)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

창설년도: 1999년

전문교육: 일본국립대학 이공계학부과정 학습

자 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 및 일본 입국 시까지 확실히 졸업이 가능한 자

연령제한: 채용 시 만17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모집분야: 이공계

기 간: 예비교육과정 1년을 포함하여 5년(예비교육 6개월은 한국 내에서 실시)

도입시기: 10월초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인 원: 100명(2016년도), 100명(2015년도)

## 영리더프로그램(YLP)유학생

---

창설년도: 2000년

전문교육: 일본의 전문 대학원에서 영어로 석사학위과정 전문교육 학습

자 격: 미래 국가적 리더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젊은 행정관 등으로, 대학졸업자로서 행정기관 및 기업 등에서 3~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후보자는 대상국의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한다.

(필요 경험연수는 코스별로 다름)

연령제한: 채용 시 만40세(단, 경제분야는 35세) 미만인 자(코스별로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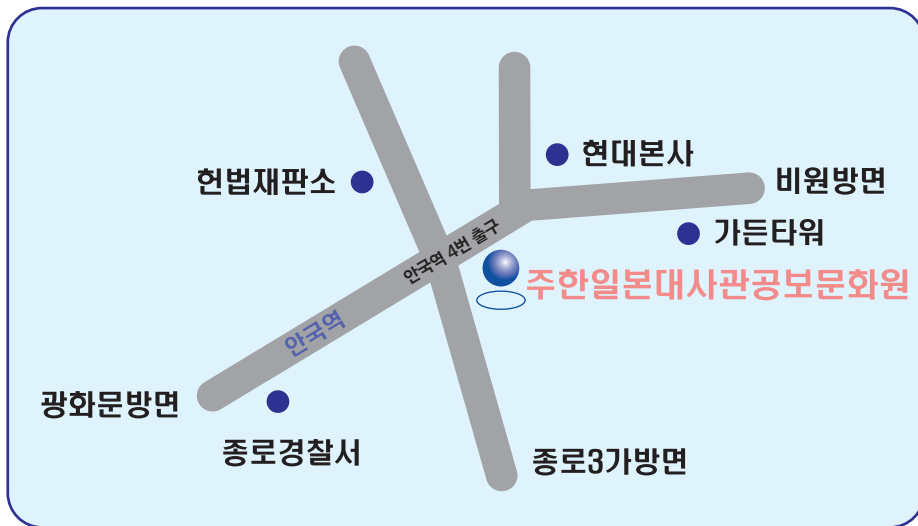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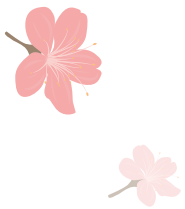
모집분야: 법률, 행정, 지방행정, 경제(한국의 경우)

기 간: 석사과정 1년

도입시기: 10월

장 학 금: 매월 지급, 학비 면제, 왕복항공권 등

인 원: 각 분야별 약 2명 정도



## [문의]: 주한일본대사관공보 문화원 유학상담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에 유학상담실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본정부 초청 국비유학생 안내 및 일반적인 유학 정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문 유학 상담원이 상주하며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할 시에는 시전에 예약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10:00 - 17:30 (12:30 - 13:30 시는 점심 시간) 토요일, 일요일, 축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무
- 주 소: 110-350 서울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 전 화: 02-765-3011/3(내선 145 번)
- 팩 스: 02-742-4629
- 메 일: yuhak@so.mofa.go.jp
-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